성인간호학회지 제24권, 제2호, 2012년 4월
Korean J Adult Nurs Vol. 24 No. 2, 183-190, April, 2012
ISSN 1225-4886
http://dx.doi.org/10.7475/kjan.2012.24.2.183

지역사회 거주 노인의 성생활과 삶의 만족도 간 관계

황은희[1] · 신수진[2]

원광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1], 순천향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2]

Relationship between Life Satisfaction and Sexuality among Community-dwelling Elderly

Hwang, Eun-Hee[1] · Shin, Su Jin[2]

[1]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Wonkwang University, Iksan
[2]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Soon Chun Hyang University, Choenan, Korea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ported patterns of sexuality and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Methods:** Study participants were 490 older than 60 years of age who participated in a sexuality education program over five provinces. Data were collected from August to October, 2009 by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PASW/WIN 18.0 program. **Results:** 163 participants (33.3%) reported being sexually active with a frequency on an average of 3.16 times per month. The reported life satisfaction of the participants was significantly different in terms of education level ($p<.001$), health status ($p<.001$), economic status ($p<.001$), sexual behaviors ($p<.001$), and attitude on the sexuality ($p=.023$). The reported life satisfaction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sexual attitudes and the frequency of sexual behaviors. **Conclus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elderly person has a positive sexual attitude although not all elderly people are sexually active. There are several influencing factors on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Therefore, it is needed to investigate the sexuality of the elderly more closely to enhance their life satisfaction.

Key Words: Aged, Life satisfaction, Sexuality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019년 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현재, 우리 사회 전체 인구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평균 수명의 증가로 노인인구의 비율이 젊은 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다. 즉, 사회적으로 소수집단이었던 그들이 이제는 다수집단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이다. 또한 노인들의 경제 수준이 향상되고 의식주를 크게 걱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상황이 되면서, 인생을 마치는 순간까지 남성 혹은 여성으로서의 행복을 추구하는 노인들이 점차 늘어가고 있으며,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건강하고 활동적인 '젊은 노인'들이 증가하게 되었다(Kang, 2007).

고령화 사회 및 노인에 대한 높은 관심들은 이제 노년의 삶을 단순한 수명 연장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하면 노년을 보다 안락하고 보람되게 보낼 수 있는가, 즉 삶의 질이라는 관점에서 본격적으로 거론해야 할 시점에 이르게 되었다(Song, 2006). 삶의 질은 개개인이 향유할 수 있는 양적, 경제적, 물질적 생활 여건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생활 만족의 정도

주요어: 노인, 성, 삶의 만족도

Corresponding author: Shin, Su Jin
Department of Nursing, Soon Chun Hyang University, 366-1 Ssangyong-dong, Choenan 330-090, Korea.
Tel: +82-41-570-2491, Fax: +82-41-574-3860, E-mail: ssj1119@sch.ac.kr

투고일: 2011년 12월 1일 / 수정일: 2012년 4월 10일 / 게재확정일: 2012년 4월 21일

© 2012 Korean Society of Adult Nursing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노인 자신의 일생에 관한 행복 및 생의 목표 달성과 직접 연결되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Choi, 2010). 삶의 질 정도를 측정하는 기준의 하나로 삶의 만족도 개념이 제시되고 있는데, 삶의 만족도란 생활 전체에 대한 행복과 만족의 주관적인 감정이며 일종의 태도라고 볼 수 있으며, 생활의 실제와 기대 간의 일치에서 오는 개인의 감정에 따른 주관적, 개인적 현상으로 심리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삶의 만족도는 노인에게 삶의 궁극적 목표이자 성공적인 노화의 지표라고 할 수 있다(Kang, 2007; Shin, 2011). 선행연구결과에 의하면 노인의 건강상태, 자녀 유대관계, 사회활동, 경제상태, 배우자 유무, 성생활 등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 Joung, 2009; Park, 2010; Shin, 2011; Song, 2006).

노인의 성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에 들어서이며, 그 논란의 중심에는 '박카스 아줌마'가 있어 왔다. 이는 노인의 성을 비로소 사회 문제로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되어, 노인의 성 관련 범죄와 성병 증가와 같은 문제 그리고 건강한 노인의 성에 대한 관심이 매우 커지게 되었다. 최근의 급증하는 노인의 성 관련 논문과 다양한 국가 정책의 시행,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는 노인의 성에 관한 우리 사회의 점진적인 인식의 변화를 대변해 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성에 대하여 폐쇄적인 부분이 많으며, 더욱이 대상자가 노인일 경우 성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더욱 크다는 점에서 볼 때(Kang, 2007) 이러한 변화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노인에게 있어 성적 활동이나 관심이 건강과 관련되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Liu et al., 2010; Lindau & Gavrilova, 2010) 건강유지 및 증진을 위해 노인의 성문제에 대해 고찰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다고 사료된다.

노인의 성생활 실태에 관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62.8%의 남성노인과 24.8%의 여성노인이 현재 성생활을 하고 있었으며, 성생활 상대는 대부분 배우자인 것으로 나타났다(Lee & Kim, 2007). 또한 성욕구 대처행동은 통제적 유형이 표현적 유형보다 우세했으며, 성행동의 예측 요인으로 연령과 배우자 유무, 성지식과 성태도, 교육수준, 스트레스 수준 등이 확인되었다(Rim & Park, 2011; Wang, Lu, Chen, & Yu., 2008). 56.8%의 노인이 현재 성생활을 잘 누리지 못하였고, 30.8%의 노인은 성생활에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강문제와 배우자의 부재가노인의 성생활을 저해하는 요인이었다(Lee, K. S., 2009). 성지식의 경우, 현재의 노인이 가지고 있는 성에 대한 정보의 대부분은 전통적인 유교의식 및 가부장적인 문화에서 학습된 것이므로 새로운 교육을 통해 자유로우면서도 일탈적이지 않은 성 개념을 정립할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를 제공받아야 하며(Yun, 2010),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노인의 성지식에 대한 추가적인 고찰이 필요하다.

노인의 성생활이란 성교와 같이 성행위로만 국한되는 경향이 아니라 모든 유형의 성적 관계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으며(Yun, 2010), 노년기에 상실되어지는 직업 활동 중심의 사회적 관계를 대신하여 소외감과 고독감을 해결해 주는 삶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Park, 2006), 노인의 삶에 있어 성은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성태도와 성욕구 대처행동(Park, 2010), 성생활에 대한 만족정도(Rim & Park, 2011; Shin, 2011)가 노인의 삶이 만족도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노인의 성에 관한 문제는 관심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그 연구가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못하며, 또한 연구결과를 정책적으로 반영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미진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국 5개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성생활 실태와 성지식, 성 태도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삶의 만족도를 파악하고자 하며, 이는 노인의 성과 삶의 만족도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자료로써 노인의 성 문제에 대한 관점을 새롭게 하며 향후 차별화된 노인의 성 정책 마련의 기초가 될 것이다. 이에 따른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성생활 관련 실태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성생활 관련 실태에 따른 삶의 만족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 성생활 관련 실태와 삶의 만족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노인의 성생활 관련 실태와 삶의 만족도와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자 모집을 위해 5개 지역(서울, 경기, 충청, 경상, 전라)의 노인복지관이나 종합사회복지관을 표출하였고, 복지관을 이용하는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을 위한 성교육 프로그램을 홍보하였다. 성교육 프로그램에 참여를

위해 모인 노인 중 설문조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노인은 지역별로 108~157명 수준으로 총 659명이었다.

자료수집은 2009년 8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되었으며, 교육프로그램 시행 전에 참여노인에게 조사의 목적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였으며, 설문지에 직접 기입하거나 설문을 읽기 어려운 경우 연구자로부터 연구의 목적과 진행에 대한 사전 교육을 받은 보조원이 읽고 응답을 대신 작성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총 539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으며, 불성실하게 응답한 49부를 제외한 490부가 자료분석에 사용되었다. 설문조사가 끝난 후 성교육 프로그램과 함께 인센티브를 제공하였다.

3. 연구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삶의 만족도, 성생활 관련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1)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은 거주 지역, 성별, 연령, 교육 정도, 배우자 유무, 가족 유형, 주관적 건강상태, 경제상태, 경제활동 참여 여부의 9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는 Diener, Emmons, Larsen과 Criffin (1985)가 개발한 7점 척도의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SWLS) 도구를 대상자가 노인인 점을 고려하여 5점 척도로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총 5문항으로 최저 5점에서 최고 2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Cronbach's α=.670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822였다.

3) 성생활 관련 실태

성생활 관련 실태는 성 파트너 유무, 성생활 유무, 평균 성생활 빈도, 성지식, 성태도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하여 조사하였다. 성생활은 직접적인 성교뿐만 아니라 모든 유형의 성적 관계를 포함한다.

(1) 성지식

성지식 측정을 위해서는 White (1982)가 개발한 Aging Sexuality Knowledge and Attitudes Scale (ASKAS)를 Quinn-Krach와 Van Hoozer (1988)가 수정하고 Park (2008)이 수정·보완하여 사용한 성지식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29문항으로 문항별로 정답인 경우 1점, 오답인 경우 0점 처리하여, 총점은 최저 0점에서 최고 29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성지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Cronbach's α=.920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868이었다.

(2) 성태도

성태도 측정을 위해서는 Kim과 Lee (2000)의 도구와 White (1982)가 개발한 Aging Sexuality Knowledge and Attitudes Scale (ASKAS)를 토대로 노인 간호를 전공하는 연구자가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 15문항의 3점 척도의 도구로 최저 15점에서 최고 4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성태도가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786이었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PASW/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일반적 특성 및 성지식과 성태도 그리고 삶의 만족도 정도는 기술통계를 이용하였으며, 일반적 특성 및 성생활 관련 실태에 따른 삶의 만족도의 차이는 t-test, ANOVA, Scheffe test, Pearson correlation으로 분석하였다.

5.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성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노인을 편의표출 방법으로 표집 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전체 노인에게 일반화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거주지역은 도시가 57.6%, 농촌이 42.4%였으며, 연령은 70대가 54.9%로 가장 많았다. 성별은 남 40.4%, 여 59.0%로 여성이 비교적 많았다. 교육정도는 무학 5.3%, 초졸 28.2%, 중졸 20.2%, 고졸 24.9%, 대졸 이상 20.0%로 초등학교 졸업이 가장 많았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61.0%, 없는 경우가 36.7%였다. 가족유형은 독거세대, 부부만, 기혼자녀와, 미혼자녀와, 기타로 구분하였고, 부부만 살고 있는 가족유형 형태가 46.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독거세대가 22.4%로 많았다. 주관적 건강상태로 매우건강하다 7.8%, 건강하다 42.4%, 보통이다 34.1%, 건강하지 못하다 10.4%, 건강이 나쁘다

4.9%의 분포를 보였다. 경제상태는 상, 중, 하로 구분하였고 69.8%가 자신의 경제상태를 중이라고 응답하였고 31.8%만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490)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or M±SD	Range
Residential area	Urban	282 (57.6)	
	Rural	208 (42.4)	
Age (year)		71.2±5.24	60~90
	60~69	183 (37.3)	
	70~79	269 (54.9)	
	≥80	38 (7.8)	
Gender	Male	198 (40.4)	
	Female	289 (59.0)	
	Missing	3 (0.6)	
Educational status	None	26 (5.3)	
	Elementary school	138 (28.2)	
	Middle school	99 (20.2)	
	High school	122 (24.9)	
	≥College	98 (20.0)	
	Missing	7 (1.4)	
Spouse	Have	299 (61.0)	
	Don't have	180 (36.7)	
	Missing	11 (2.2)	
Living with	Alone	110 (22.4)	
	Husband or wife	227 (46.3)	
	Married son or daughter	78 (15.9)	
	Their children	51 (10.4)	
	Others	17 (3.5)	
	Missing	7 (1.4)	
Subjective health perception	Very good	38 (7.8)	
	Good	208 (42.4)	
	Moderate	167 (34.1)	
	Not good	51 (10.4)	
	Bad	24 (4.9)	
	Missing	2 (0.4)	
Subjective economic status	High	15 (3.1)	
	Moderate	364 (69.8)	
	Low	130 (26.5)	
	Missing	3 (0.6)	
Moneymaking	Yes	156 (31.8)	
	No	315 (64.3)	
	Missing	19 (3.9)	

2. 대상자의 성생활 관련 실태

대상자의 37.6%가 성 파트너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33.3%가 성생활을 하고 있으며 한 달에 성생활 빈도는 평균 3.16±2.62회로 나타났다. 성지식 점수는 평균 14.3±6.27점이었으며, 성태도 점수는 31.8±5.44점이었다(Table 2).

Table 2. Descriptive Summary on Variables of Sexuality (N=490)

Variables		n (%) or M±SD	Min	Max
Sexual partner	Have	184 (37.6)		
	Don't have	283 (57.8)		
	Missing	23 (4.7)		
Sexual behavior	Do	163 (33.3)		
	Do not	300 (61.2)		
	Missing	27 (5.5)		
Frequency of sexual behavior (monthly)		3.16±2.62	0	15
Knowledge on the sexuality		14.3±6.27	0	25
Attitude on the sexuality		31.8±5.44	15	45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삶의 만족도의 차이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는 교육정도, 주관적 건강상태, 주관적 경제상태였다(Table 3).

교육정도에 따른 삶의 만족도의 차이는 대졸 이상의 삶의 만족도 점수가 16.9±3.67로 초졸(15.0±3.93)이나 중졸(14.8±3.73)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건강상태에 따른 삶의 만족도 차이는 매우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대상자의 삶의 만족도가 17.5±5.1점으로 나타나 보통이다(15.3±3.41), 건강하지 못하다(14.1±3.47), 건강이 나쁘다(13.7±4.36)고 생각하는 대상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상태는 상, 중, 하로 분류하였으며 경제상태에 따른 삶의 만족도는 상(16.8±4.9)또는 중(16.0±3.65)인 경우 하(14.1±3.85)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거주 지역, 성별, 연령, 주거형태, 배우자 유무, 경제활동 유무에 따라서는 삶의 만족도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성생활 실태에 따른 삶의 만족도의 차이

성파트너 유무에 따라서는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성생활을 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3.62, $p<.001$).

또한 성지식 정도와 성태도 점수에 따라 25% 이하, 평균 그룹, 75% 이상 그룹으로 나누어 삶의 만족도를 비교한 결과, 성지식 정도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성태도가 상위 75%에 해당하는 긍정적인 경우 삶의 만족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3.80, p=.023)(Table 4).

Table 3. Life Satisfactio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490)

Characteristics	Categories	M±SD	t or F	p	Scheffe
Residential area	Rural	15.2±3.76	-0.53	.598	
	Urban	16.0±3.84			
Gender	Male	15.7±3.72	0.71	.478	
	Female	15.4±3.87			
Age (year)	60~69	15.3±4.02	1.17	.311	
	70~79	15.8±3.77			
	≥80	15.1±2.99			
Educational status	None[a]	14.5±3.25	5.35	<.001	b, c<e
	Elementary school[b]	15.0±3.93			
	Middle school[c]	14.8±3.73			
	High school[d]	15.6±3.69			
	≥College[e]	16.9±3.67			
Living with	Alone	15.2±4.10	1.46	.212	
	Husband or wife	15.9±3.37			
	Married son or daughter	15.7±3.54			
	Their children	14.8±4.18			
	Others	14.7±5.68			
Subjective health perception	Very good[a]	17.5±5.15	6.29	<.001	a>c, d, e
	Good[b]	15.8±3.66			
	Moderate[c]	15.3±3.41			
	Not good[d]	14.1±3.47			
	Bad[e]	13.7±4.36			
Subjective economic status	High[a]	16.8±4.39	12.59	<.001	a, b>c
	Moderate[b]	16.0±3.65			
	Low[c]	14.1±3.85			
Spouse	Have	15.7±3.72	1.73	.085	
	Don't have	15.1±3.95			
Moneymaking	Yes	15.8±3.75	0.92	.360	
	No	15.4±3.79			

Table 4. Life Satisfaction according to Actual Condition of Sexuality (N=490)

Variables	Categories	M±SD	t or F	p
Sexual partner	Have	15.9±3.62	1.65	.100
	Don't have	15.3±3.93		
Sexual behavior	Do	16.4±3.62	-3.62	<.001
	Do not	15.0±3.85		
Knowledge on the sexuality	≤11	15.5±3.63	2.57	.078
	12~19	15.0±3.43		
	≥20	16.1±4.22		
Attitude on the sexuality	≤27	14.8±3.53	3.80	.023
	28~35	15.5±3.70		
	≥36	16.2±3.91		

5. 성 관련 변수와 삶의 만족도와의 상관관계

성 관련 변수와 삶의 만족도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삶의 만족도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 변수는 성태도(r=.116, p=.017)와 성생활 빈도(r=.197, p=.038)였으며, 성태도가 긍정적이고 성생활 빈도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437, p<.001). 또한 성태도와 성지식과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r=-.109, p=.026), 연령이 높을수록 성태도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논 의

본 연구는 노인을 대상으로 성생활 관련 실태와 그에 따른 삶의 만족도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로 전국 5개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연구대상자의 61.0%가 배우자가 있었고, 부부만 거주하는 유형이 46.3%였으며, 건강상태에 대해 50.2%의 대상자가 건강하다고 답하였다. 광역시 거주 노인을 대상으로 한 Rim과 Park (2011)의 연구에서 59.5%의 대상자가 배우자와 동거하고 있으며, 37.9%가 부부만 거주하는 유형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촌 지역 노인을 대상으로 한 Lee와 Kim (2007)의 연구에서 62.2%의 대상자 즉, 남성노인의 79.1%, 여성노인의 45.9%가 배우자가 있었으며, 59.9%의 대상자가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그러나 건강상태에 대한인지는 33.2%의 대상자만이 건강하다고 하여 본 연구대상자에 비해 낮았으며, 이는 연구대상자가 거주하는 지역적 특성에 의한 차이로 볼 수 있다.

한편, 배우자가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61.0%인 반면 대상자의 37.6%만이 성 파트너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33.3%의 대상자가 현재 성생활을 하고 이들의 성생활 빈도는 월평균 3.16회이었다. 도시 지역 거주 노인의 경우, 73.4%의 대상자가 배우자가 있었고, 56%가 성생활을 하고 있으며(Ra & Kim, 2011), 농촌 지역 거주 노인의 경우, 60.2%의 대상자가 현재 성생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Lee, 2004) 본 연구에 비해 더 많은 대상자가 성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남성노인은 38.9%, 여성노인은 16.8%가 성생활을 하고 있고(Lindau & Gavrilova, 2010), 태국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35.7%의 대상자가 성생활을 하고 있으며, 1년에 평균 21.4회의 성관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Wang et al., 2008)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이에 대해 노인에게 배우자가 곧 성 파트너를 의미하는 것이 아닐 수 있으며, 연구에 따른 이러한 차이는 성생활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노인 대상자의 임의적, 포괄적 해석에 의한 것이라 사료된다. 상기 선행연구 중 성생활에 대한 구체적 정의를 제시한 연구가 없으며, 미국 노인 대상의 Lindau와 Gavrilova (2010)의 연구에서는 성생활에 신체적 및 정서적 관계를 포함하여 정의하였다. 노인의 성은 성교라는 의미의 sex 뿐만 아니라 외음기 및 성감대와 관련된 다양한 성행위들을 포함하고 더불어 감정, 태도 그리고 관계와 같은 심리적인 측면들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Park, 2010)는 견지에서 볼 때 노인의 성생활은 다양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따라서 추후 노인의 성생활에 대한 면담을 통해 구체적인 개념 정의가 필요할 것이다.

연구대상자의 성지식은 평균 14.3점, 성태도는 평균 31.8점으로 중간 이상의 성지식과 긍정적인 성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성태도가 부정적이었다. 노인의 성태도와 성 욕구대처행동에 관한 Park (2010)의 연구결과 대상자의 성태도는 도덕적 성태도의 평균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이는 노인의 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보수적인 경향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노인의 성생활 변화에 대해 대부분의 대상자가 자연스러운 일로 생각하며, 적극적이고 다양한 성 생활을 하려고 하는 의식이 있어(Lee, Y. R., 2009), 노인의 성지식과 성태도가 시대의 변화와 함께 점차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5. Correlation between Life Satisfaction and Variables related to Sexuality

Variables	LS	KS	AS	Age	FS
	r (p)	r (p)	r (p)	r (p)	r (p)
Life Satisfaction	1	.090 (.074)	.116 (.017)	.005 (.908)	.197 (.038)
Knowledge on the sexuality		1	.437 (< .001)	-.032 (.536)	-.124 (.244)
Attitude on the sexuality			1	-.109 (.026)	-.009 (.930)
Age				1	.036 (.706)

LS=life satisfaction; KS=knowledge of the sexuality; AS=attitude on the sexuality; FS=frequency of sexuality.

본 연구대상자의 삶의 만족도는 대졸 이상인 경우, 주관적 건강상태가 매우 건강한 경우, 경제상태가 상 혹은 중인 경우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성생활 만족도와 삶의 만족도에 관한 Kim (2007)의 연구결과, 학력이 높고 월평균 용돈이 많으며 남자 노인인 경우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일부 일치한다. 또한 노인의 성태도와 성 욕구대처행동에 관한 Park (2010)의 연구결과 월 용돈에 따라 삶의 만족도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해준다. 노인 대상자가 가진 문제 중 건강 및 보건의료문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연구결과(Rim & Park, 2011)에서 보듯 노인의 삶에 있어 건강은 가장 중요한 영향 요인이다. 또한 건강한 대상자가 그렇지 않은 대상자에 비해 성생활이 활발하고(Lindau & Gavrilova, 2010), 성생활을 하지 않은 요인으로 고령, 낮은 학력수준, 파트너의 부재, 발기불능을 포함한 질병이 제시된 연구결과(Hyde et al., 2010; Liu et al., 2010)로 노인의 건강과 성, 그리고 삶의 만족도 간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실제로 성지식과 성태도가 노인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증대시켜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Wang et al., 2008). 그러나 이들 요인 간의 영향력이나 관계성에 대한 연구결과가 부족하여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성생활 관련 실태에 따른 삶의 만족도는 성생활을 하는 경우와 긍정적인 성태도를 가진 경우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노인을 대상으로 한 Lee (2004)의 연구와 Yun (2010)의 연구결과, 성생활의 중요성, 성생활 유무, 성생활 빈도, 성생활 만족도, 젊은 시절 성생활 원만 여부, 성태도, 성관심도, 성중요도에 따라 삶의 만족도가 유의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해준다. 그러나 노인의 성생활 만족도와 삶의 만족도에 관한 Kim (2007)의 연구와 노인의 성태도와 성 욕구대처행동에 관한 Park (2010)의 연구결과 배우자 유무에 따라 삶의 만족도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상반된다. 이는 배우자의 유무가 성생활에 전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실제 성생활의 파트너 유형에 대한 구체적인 고찰이 요구된다.

또한 본 연구결과 성태도가 긍정적이고 성생활 빈도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성생활 여부와 성생활 만족도가 노인의 삶의 만족도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성에 대한 개방적 태도가 매개가 되어 삶의 만족도를 더욱 더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Ra & Kim, 2011), 표현적 성 욕구대처행동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연구(Rim & Park, 2011) 결과와 일치한다. 본 연구결과와 선행연구결과를 통합하여 고찰해 볼 때, 노인의 삶에 있어 성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결 론

본 연구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성생활 관련 실태와 그에 따른 삶의 만족도의 차이를 파악하여, 차별화된 노인의 성 정책 마련의 기초자료를 제시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지역사회 거주 노인들은 중간 이상의 성지식과 긍정적인 성태도를 가지고 있으나, 실제로 성생활을 하고 있는 노인은 많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성생활을 하는지의 여부가 노인의 삶의 만족도와 관련이 있다는 것과 긍정적 성태도와 성생활 빈도가 삶의 만족도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노인 대상자의 삶의 질과 성공적인 노화를 위한 중재 방안의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사료된다. 아울러 연구대상자를 전국 5개 지역으로 확대하여 보다 광범위한 고찰을 시도한 것 역시 본 연구가 가지는 강점이라고 판단된다.

노인에 있어 성생활의 의미가 다른 연령대의 성생활과 다를 수 있다는 일부 선행연구결과에 비추어 볼 때, 노인의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성의 영향력은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견지에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노인의 성생활의 의미와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구체적인 심층 연구를 시행해 볼 것을 제안한다.

둘째,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성지식과 성태도의 매개효과 혹은 직접적인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 시행을 제안한다.

REFERENCES

Choi, H. K. (2010). *A study on the effect of mental health on quality of life for the aged-Focused on the aged and super aged-.*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Hanyang University, Seoul.

Diener, E., Emmons, R. A., Larson, R. J., & Griffin, S. (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 71-75.

Hyde, Z., Flicker, L., Hankey, G. J., Almeida, O. P., AcCaul, K. A., Paul, S. A., et al. (2010). Prevalence of sexual activity and associated factors in men aged 75 to 95 years. *Annals of Internal Medicine, 153*, 693-702.

Kang, M. Y. (2007). *The impact of the elderly's sexual expression and sexual preference on their life satisfac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Kim, H. O., & Joung, K. H. (2009). Comparison of health life-

style among elders according to residential area. *Journal of Korean Gerontological Nursing, 11*(1), 16-28.

Kim, J. H., & Lee, C. E. (2000). A Study on Sexuality of the married korean elderly.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20*(3), 185-195.

Kim, Y. A. (2007).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atisfaction of sexual life and the quality of life.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nkook University, Seoul.

Lee, I. S. (2004). Sexual life and life satisfaction of elderly in the rural community. *Journal of Korean Community Health Nursing Academic Society, 18*(2), 225-233.

Lee, I. S., & Kim, H. S. (2007). Sexual life and life satisfaction of rural elderly.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ublic Health Nursing, 21*(2), 158-170.

Lee, K. S. (2009). *The effects of the elderly's sex recognition and sexuality on life satisfac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Hoseo University, Asan.

Lee, Y. R. (2009). *A study of "What does the sexual life of the aged people have influence on the satisfaction of living".*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nkook University, Seoul.

Lindau, S. T., & Gavrilova, N. (2010). Sex, health, and years of sexually active life gained due to good health: evidence from two US population based cross sectional surveys of ageing. *British Medical Journal, 340*, 1-11.

Liu, C. C., Juan, H. C., Lee, Y. C., Wu, W. J., Wang, C. J., Ke, H. L., et al. (2010). The impact of physical health and socio-economic factors on sexual activity in middle-aged and elderly Taiwanese men. *The Aging Male, 13*(2), 148-153.

Park, M. H. (2008). *The effects of sex education on the sex knowledge and sex attitude of the elderly.* Unpublished master's thesis, Keimyung University, Daegu.

Park, M. Y. (2010). *Potential effects of aged people's sexual attitudes and sexual desire coping behaviors on their life satisfac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nam University, Daejeon.

Park, T. R. (2006). Research of the attitudes toward the sexuality of the older persons. *Journal of Social Welfare Development, 12*(3), 235-249.

Quinn-Krach, P., & Van Hoozer, H. (1988). Sexuality of the aged and the attitudes and knowledg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27*(8), 359-363.

Ra, D. S., & Kim, Y. D. (2011). The impact of the elderly's sexual life and sexual attitude on their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52*, 185-204.

Rim, C. S., & Park, M. Y. (2011). A study on old people's sexual desire coping behaviors and their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52*, 131-154

Shin, Y. S. (2011). *A study on elderly people's sex life and their satisfaction with life.*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sung University, Seoul.

Song, N. W. (2006). *The influence of sexual life of the aged on the quality of lif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wangwoon University, Seoul.

Wang, T. F., Lu, C. H., Chen, I. J., & Yu, S. (2008). Sexual knowledge, attitudes and activity of older people in Taipei, Taiwan. *Journal of Clinical Nursing, 17*(4), 443-450.

White, C. B. (1982). A Scale for the assessment of attitudes and knowledge regarding sexuality in the aged. *Archives of Sexual Behavior, 11*(6), 491 502.

Yun, J. S. (2010). *A study on the correlation between sexuality awareness and life satisfaction of the aged.* Unpublished master's thesis, Incheon University, Incheon.